

김승년 불교계는 조계종의 개혁불사로 상징된 한해였다. 각종단은 새종정 취임과 더불어 도약을 다짐했으며 부산·광주 불교방송 및 불교CATV 추진 등 포교의 첨단·과학적 신기원이 이뤄지는 해이기도 했다. 종단·출판·문화·문화재·반승·환경을 통해 1994년 불교계를 결산한다.

'94 불교계 결산 개혁·종흥의 발판 구축... 분주했던 한해

월하·보성·도용·각해대종사 취임

4대종단 종정취임

불교의 4대 종단이라 할 조계 대고 전대 전각종의 새 종정들이 취임하는 진기표를 남긴 한해였다. 전대종의 도용종정은 비록 지난해 12월22일 종정으로 추대됐지만 올해 2월 23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천태종의 이사장으로 승인되는 등 실질적으로 1994년부터 종정 업무에 들어갔으며 남파승으로 보낸 전각종 6대 총인 원정각 대종사가 2월 25일 열반. 7대 총인으로 각해 대종사가 추대돼 6월16일 추대식을 봉행했으며 태고종은 4월 28일 우백암종정이 열반함에 따라 후임으로 정보성 대종사가 8월25일 추대식을 가졌다. 조계종은 제9대 종정 월하스님이 5월13일 조계사에서 추대식을 봉행했다. 새로 취임한 종정스님들은 한결같이 겸손함과 부지런함, 높은 수행력으로 종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각 종단들은 새종정 취임과 더불어 개혁과 도약을 새롭게 천명하고 있다.

개혁회의 8개월...새원장 선출

조계종 개혁불사

올해 조계종은 개혁불사로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격동적이고 획기적인 역사의 큰 획을 그으며 자주적·민주적 종단비전에 심혈을 기울인 한 해였다. 선우도량 실천승가의 전승된 동국대 석림동종회등 고계 8개 단체가 주축이 돼 구성된 범종추진 사부대중의 전격 호응을 받으며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다. 3·29, 4·10 법안을 통해 공권력과 평행히 맞섰으나 불교자주화를 향한 단합으로 이겨냈다. 승려대회를 거쳐 출범한 개혁회의는 지난 11월 21일 승일주스님이 총무원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새 집행부에 종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했다. 8개월 간에 걸친 개혁불사는 인사와 징계문제 일부 잡음은 있었으나 종회의의 권위와 지명지치에 따른 교구중흥개설, 재정공개 명문화, 포교원 승격으로 포교활성화 강구, 교육원 신설등 승려교육 강화, 소청권 신설 등 이채적 조계종에서 의욕은 있었으나 시도 못했던 제도를 획기적으로 마련하는 쾌거를 이뤘다.

활동미진·반성과 역할론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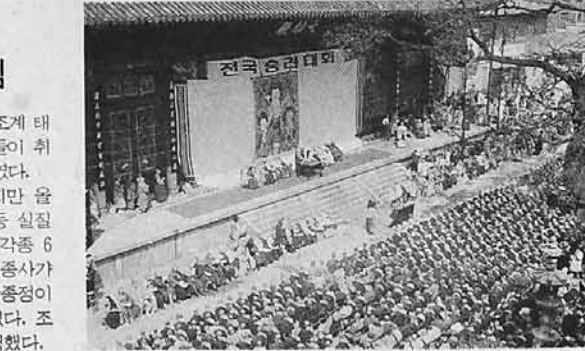
재가신도회의 부침

그동안 재가불자의 구심점 역할을 자칭하던 조계종 전국신도회는 조기전 전회장이 상무대비리로 구속되면서 침체돼 이렇다할 움직임이 명백한 간신히 유지하게 되었다. 여기에 개혁의 바람이 일었고 재가신도들의 반성과 역할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열기속에 7월 23일, 3천여명의 재가자와 40여개 재가 단체가 모여 한국재가불자연합(상임회장 안동일)이 탄생했다. 재가불자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창립한 재가연합은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와함께 조계종 개혁종단도 재가신도의 개혁을 위해 신도법을 새롭게 정비, 신도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등의 조항을 담은 신도법을 11월 9일 조계종 개혁회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4월부터 일기시작한 조계종단의 개혁은 재가신도들에게도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자비실천사업 전국으로 확산

사회복지관 개관 줄이어

올해 유난히 사회복지관 개관이 잇따라 불교사회복지사업이 활기찬 한 해였다. 신승사가 2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한데 이어 5월 여천 흥국사가 여수시에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다. 또한 6월 1일 통도사 자비원이 창원 금리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으며 11월에는 공양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는 등 지역에서의 사회종합복지관의 개원이 두드러졌다. 이외에도 재가신행단체인 동산보이회가 7월 30일 서울 조계사앞에 한국불교 시민상담소를 개설, 일반인을 대상으로 폭넓고 전문적인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9월 30일 불교자살예방사업연합회가 창립, 도시민과 불우이웃, 장애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한편 서울 삼전사는 11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 내년에 은평구에 사회복지관을 설립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법인 자비원과 사단법인 불국토도 강릉시와 부산시로부터 강릉사회복지관, 개곡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새해 1월에 개관한다.



○지난 4월10일 전국 조계종 승려 3천여명이 모인 승려대회를 통해 조계종의 개혁불사는 본격적으로 뜻을 올렸다.



○평화적으로 종권을 이양받은 월주 총무원장 집행부는 개혁 불사 원수라는 과업을 앞에 두고 있다.



○물자들의 폭넓은 참여속에 80여명의 주식을 모금한 불교텔레비전은 내년 3월 개국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립 동국대 국문과 학생들이 교정안에서 교수들 집단 폭행,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으나 전 동국인의 자성과 참회는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

행사 많았으나 참여 부족

아쉬움 남긴 환경운동

올해 불교계의 환경운동은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환경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현대불교신문사 공해추방 운동불교인모임 등 불교계 6개단체가 그린스카우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법정스님에 의해 주도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주목을 끌었다. 불교환경교육원은 사단법인화하면서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모토로 22차례에 걸친 환경수련 교육과 생태주의 연구를 통한 이념정립,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생명의 가치관과 새로운 생활양식> 등의 자료집을 발간, 교육·연구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태고종은 지난 3월 환경보존 실천수행영산대법회를 봉행했으며, 전각종 청정국토가꾸기 운동 본부는 종단속속 1백여 심인당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나눠주며 자원재활용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천태종은 청년회가 중심이 돼 환경수호대를 발대시켰다. 그러나 환경운동은 외형적인 드러남에 비해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또 1회성 행사위주의 단편성을 띄어 생활속에서의 환경운동의 활성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두었다.

원각·경천사지탑 훼손 파문

문화재 수난

올해도 문화재는 각종 재난에 시달린 한해였다. 산성비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 문화유산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파괴되었다. 나아가 고의적인 파손까지 자행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는, 서울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 제2호) 탑신에 새겨진 석가모니불 사천왕상 등이 누공기의 고의적인 충격에 파손된 것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원각사지탑과 경북공해 경천사지 10층석탑 탑둘레에 보호각을 설치기로 했다. 그러나 그만큼 성보문화재는 불자 및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 올해만도 40여점의 문화재가 도난되는 수난을 겪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이 산하에 문화사회부를 신설하고, 성보문화재 조사비 및 관리비로 4천7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아쉬운대로 종단차원의 관심을 보였다.

'국악의 해' 음악활동 저조·연극침체

전시회 다양

불교출판계는 지난 한해동안 화답경의 완역 출간이라는 커다란 황금알을 낳았다. 두비스님이 30여년간의 대작불사를 완성한 이 수확은 역경사업의 새로운 장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큰 의미를 부여받았다. 불교출판계는 상반기까지 예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하반기에 눈을 뜨는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다. 문화계의 두드러진 현상은 4월에서 7월까지 각종 전시회가 꼬리를 물고 문을 열었던 점에 들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10월의 제15회 불교미술전람회로 이어져 미술분야의 활동이 돋보였던 한 해로 평가됐다. 국악의 해를 맞아 불교음악계의 활동이 기대됐으나 크게 주목을 받을 만큼의 실적은 없었다. 다만 안숙선씨에 의해 부처님일대기가 관소리로 발표됐고 불교방송국의 계속 사업인 새한불가 제작이 순조롭게 진행, 새로 20곡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연극계의 침체극면은 지난 한해에도 여전히 계속됐으며 극단 바람이 새 활동 모색을 '전용극장건립'을 통해 추진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매체포교의 새전기 마련

불교TV추진·현대불교 창간

지난 한해동안 매체 포교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수확은 불교텔레비전의 개국 준비와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으로 꼽히고 있다. 새해 3월에 개국할 예정인 불교텔레비전은 사육을 마련한 6월이후 본격적으로 개국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월말까지 79억 8천여만원의 주식모금을 마쳤다. 국내의 불자들의 전폭적인 호응 속에 전개된 불자 주주공모는 불교텔레비전의 개국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평가됐다. 교계 신문매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현대불교신문은 10월15일자로 창간됐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사시로 내걸고 전면 가로쓰기 16면체제로 시작한 현대불교는 전법과 신행의 길잡이로서의 불교 언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이다.

주요종단 자체선정 10대뉴스

조계종

- △ 3·29, 4·10 법안
- △ 개혁회의 출범
- △ 조계종 제9대 종정 월하스님 취임
- △ 탄성 총무원장 광주 5·18묘역 첫 참배
- △ 종헌·종법 제정 개정
- △ 월하종정·탄성총무원장 청와대 방문
- △ 조계사에 공권력 난입해 전기협 노동자 연행 구속
- △ 해광사에 통국대 비구니 기숙사, 보타사에 중앙승가대 비구니 기숙사 마련
- △ 새 선거문화 창출
- △ 제23대 월주 총무원장 취임

태고종

- △ 환경보존실천 수행영산대법회
- △ 종단중진간부 연찬회
- △ 제14세 백암종정 열반, 종단장 봉행
- △ 제 68회 임시 중앙총회-(재)한국 불교 태고종 유지재단 폐지, (사)한국 불교 태고종 중앙회로 대체
- △ 제15세 보성 종정 추대법회
- △ 전통문화계승 10만연승 팔관대재
- △ 전통 흥가사 해송 KBS시정방송 방영
- △ 서울·인천·경기지역 종무원 8개 로 분리
- △ 국가재난소멸기원 및 희생자 천후국재
- △ 제69회 정기중앙총회개회-종단 발전특위 등 구성

천태종

- △ 재단법인 이사장에 도용스님
- △ 한·중·일 예비회담 주도, 중국 국청사 조사전 건립불사
- △ 서울 관문사, 대전 관수사, 단양 관법사 등 대작 불사 추진
- △ 상월 원각 대조사 제 82회 탄신대재
- △ 조계종 문화 사리 431과 출현, 천전법회
- △ 환경 수호대 발대식 및 상월대조사기 배구대회
- △ 한해 외연급 모금
- △ 금강불교대 법사과정 신설
- △ 전국 각 시도단위 간부단합법회 및 전국신도 간부 단합법회
- △ 제2대 대종 종정 1주기 열반대재

전각종

- △ 원정각 총인 열반
- △ 7대 총인 각해 대종사 추대
- △ 종립 위덕대학 지진불사
- △ 전국순회법회
- △ 신교도 노후복지 금강수도원 입소식
- △ 전각회관 지진불사
- △ 밀각 심인당 개축
- △ 보살 심신계 수계 관정 불사
- △ 춘·추기 스승 강광회
- △ 신지식 한마음 수련회

금강경 (후면화도진품) 10폭 병풍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병풍 금강경 이제는 가격부담없이 모실수 있습니다.

특징

- 전면: 원력있는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금사로 조성하였습니다.
- 후면: 국전작가 재가불자화백의 연화도 진품.

규격

- 높이: 5자8치(175.8cm)
- 폭: 14자5치(439.5cm)
- 재질: 스키목, 양면비단, 스모사 특수지

포교가격

₩ 490,000
(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특별가격 ₩480,000

경관테두리에 단을 쌓아 천불을 조성하여 공덕을 기리고 가운데에 금강경을 양각으로 입체 사경하여 원력을 닦게 하였습니다.

• 경관규격: 505×255×8 (㎜) ■ 특별가격 ₩480,000
• 재질: 주석(99.9%) 순금(24K)양표면처리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서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 (조계사 후문)
■ 문의처: (02)732-6095~6

불교전통포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어드립니다.